

가나안의 편지

※위 제호는 일가 김용기 선생님께서 쓰신 필체입니다.

2025년 3월호



4월, 가나안의 '움틈'

움트는 '교육'



파마리서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나안 3 S 교육을 진행했어요.



움트는 '농장'



4월부터 가나안농장에서 쌈채를 정기배송하고 있어요



매년 4월초부터는 3주 간은 가나안에 자연산 땅두릅을 배송해요
이 외에도 브로콜리 모종과 방울토마토 모종도 심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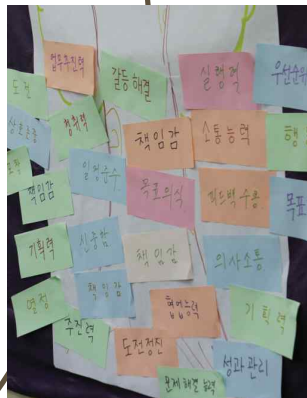
움트는 '일'



가나안 가족들과 함께 집과 교육원을 페인트칠 했어요



집집마다 지붕 위 낙엽들을 털어냈어요



본관 1층에 북카페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는 5월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에요

가나안의 편지

4월호 : 움트는 마음을 전합니다.

c o n t e n t s



04 "움트는 마음을 전합니다"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인삿말



06 가나안의 교육소식
파마리서치 3S과정
* 견학 소식



07 가나안의 농장소식

가나안의 새소식
- 꿈마을
- 북카페



후원단체 및 개인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and glasses, wearing a dark blue suit jacket over a light blue button-down shirt, is speaking into a black microphone with an orange foam cover. He is holding the microphone in his right hand and gesturing with his left hand.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colored wall. In the foreground, the backs of several audience members' heads are visible, indicating he is in a lecture or presentation setting.

인삿말

움트는 마음을 전합니다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김태은

“ 움트는 마음을 전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 가나안농군학교 곳곳에도 봄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새순들, 학교 구석구석 소리 없이 피어난 작은 야생화들이 새로운 계절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일가 김용기 장로님에 의해 개척되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삶을 일깨우고, 사회를 밝히는 이들을 길러내기 위해 씬 없이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75만여 명이 이곳을 거쳐 희망의 씨앗이 되었고,
세계 여러 개도국에도 가나안의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움틈'을 준비합니다.

학교 본관 1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를 마련하여,
책과 사람이 머무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대화가 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과 지역공동체에 자신의 꿈을 심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마을 공동체' 기숙사를 5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도시 너머 농촌에서 삶을 실험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움트는 봄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시 움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Again Canaan'이라는 이름으로, 가나안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사업을 5월부터 시작합니다.

설립자이신 김용기 장로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매일 네 시간씩 기도하셨던
구국기도실, 가족묘소, 개인기도실, 일가 사택과 사랑방, 고구마 12개월 저장고를
이어주는 역사적 현장과 이동로를 정비하여,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께 가나안의 개척정신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혼돈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큰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로 소망합니다.

가나안농군학교를 응원해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김태은 드림



2025년 가나안 3S교육 13기 파마리서치

4월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파마리서치 임직원들이 가나안농군학교에서 **3S 교육 (Stop, Stay, Share)**을 함께했습니다. 3일 동안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여정을 함께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다시금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STOP'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가능성이 조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아침에는 함께 운동하고 산책을 하며 몸과 마음을 가볍게 깨웠습니다. 2일 차에는 상추를 수확하는 노작 활동, 3일 차에는 브로콜리 결순을 따고 잡초를 뽑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흙을 만지고 자연과 함께한 이 시간은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녁엔 수확한 상추로 바비큐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마을의 딸기 농장과 성당을 둘러보며 지금 이 순간, 'STAY'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마지막 날 워크숍에서는 '이해'와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조직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함께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와 동료, 조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태도는 앞으로의 업무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짧지만 깊었던 이 시간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관계와 더 나은 일의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메단 감리교 감독, 차기감독 후보 방문

4월 1일 인도네시아 메단 감리교의 감독님과 차기 감독 후보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찾아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두 분은 가나안의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이사장님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이 지닌 '믿음, 노동, 사랑'의 정신을 깊이 있게 접하셨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하는 실천적 배움의 과정입니다. 현장을 함께 돌아보며 흙과 사람, 공동체가 만나는 이 특별한 공간이 어떤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과의 만남에서는 가나안운동의 시작과 그 뜻,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사람을 세우는 교육의 가치에 대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가나안의 정신이 개인은 물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인상 깊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마음이 닿은 진심은 오래 남는 법입니다. 이번 만남이 가나안의 정신이 더 많은 곳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씨앗교회 방문

양재동 좋은씨앗교회 성도님들께서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세택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 김용기 장로님의 삶과 가나안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이곳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믿음과 실천의 터전임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구국기도원을 함께 방문하여, 그 믿음의 흔적 위에 조용히 마음을 모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모두가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며 따뜻한 울림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후원 개인 및 단체

개인

강명진 강찬진 권기범 권영인 김기혜 김예찬 김홍주 김축복 노광수 노병현 문태규 박수영 백도현 신민선 신민희 심두자 오혁진 이자경 장소영 장은숙 전상우 정성용 정연국 최만열

단체

강남푸른치과 거룩한 빛 광성교회 돌다리교회 서문교회 세인교회 대백선교문화재단 충정교회 신림가나안교회 인애교회 온누리교회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가나안의 편지

2025년 4월호 : 움트는 마음을 전합니다.



(재)가나안복민재단

가나안농군학교

CANAAN FARMERS SCHOOL

265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5

TEL (033)762-5090/5201 FAX (033)763-6478

5, Yeonbongjeong-gil, Sillim-myeon, Wonju-si, Gangwon-do, Rep. of KOREA